



교육부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2021. 12.

교 육 부

(교원양성연수과)

목 차

□ 추진 배경	1
□ 교원의 역할 변화	2
□ 현황 및 한계	3
□ 관련 추진 경과	5
□ 추진방향 및 과제	7
I. 추진체계 (거버넌스)	8
II. 교원양성 교육과정	8
III. 중등교원 양성체제	15
IV. 초등교원 양성체제	18
□ 향후 추진 일정(안)	21
[붙임1] 운영모형 예시	22
[붙임2] 개념도 및 주요과제 추진 일정(안)	23

추진 배경

□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 (사회 변화) 4차 산업혁명, post 코로나로 인해 AI·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원성·개별화 등 가치체계 변화 가속화
- (학교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학생 선택권 및 교육과정 재구성·자율성 확대 등 학교의 변화 촉진

□ 현행 체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

- (초등교원) 학령인구 급감 따른 수급 감소, 교대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성 미흡,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 안심학년제, 기초학력 보장, 놀이교육 등

- (중등교원) 과잉 양성·높은 임용경쟁률, 일부 교육대학원 낮은 질 등 지적 및 교육실습 내실화, 복수 전공(자격) 필요성* 등 제기

* 고교학점제 도입('25~),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융·복합 교과 등에 대비 필요

미래 교육환경 변화

- ▶ post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AI,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환경
- ▶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재구성·자율성 강화 등 학교 현장의 변화
- ▶ 저출생 시대에 맞추어 학생 한명한명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교원양성체제 개편 필요성

초등교원 양성과정

- ▶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 정원 감소 전망
- ▶ 교대 소규모화 ▶ 교육과정 다양성 및 예비교원 선택권 약화
- ▶ 안심학년제, 기초학력, 놀이교육 등 새로운 역할 요구 증대

중등교원 양성과정

- ▶ 과잉 양성, 높은 임용경쟁률
- ▶ 교육실습 내실화 요구
- ▶ 학생 선택권(고교학점제), 융·복합 등 복수 전공(자격) 필요성 제기
- ▶ 일부 교육대학원 낮은 교육의 질

교원의 역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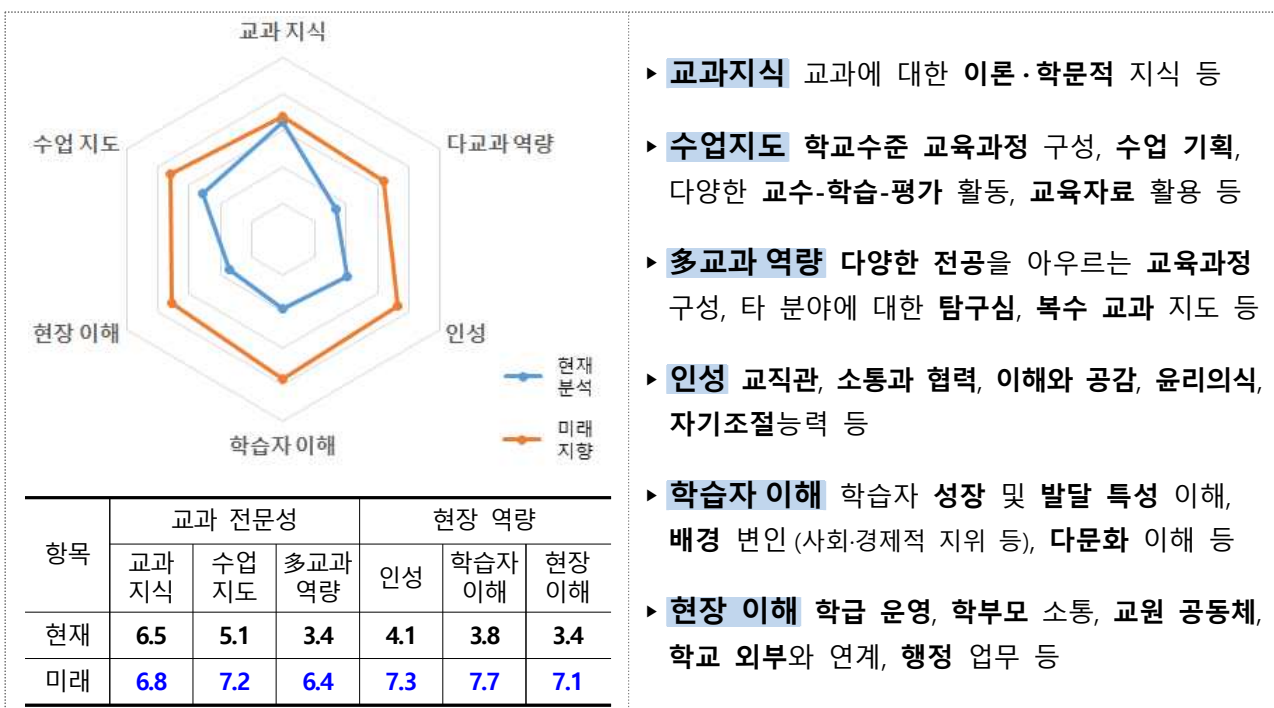
□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개선
-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

□ 교원의 역할 변화·확대

- **지식 교육**에 더하여 학생의 성장·진로개척을 함께하는 **협력자**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단순 시연하는 것을 넘어 교과 간 융합 등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주도의 수업 구안 등 수업 **기획자**
- 학급 관리자에 더하여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중재자**
- 변화에 대한 통찰력 및 탐구심(열린 태도), 새로운 기술(지능정보 기술 등)에 대한 수용성 등 미래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혁신가**

※ 교원 양성과정 지향점 설문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집중숙의단 대상 설문)



현황 및 한계

□ 교원양성 교육과정

- (무시험 검정 기준)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적·인성검사 (2회) 등 교원자격 검정 기준에 맞추어 **대학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 (복수전공·부전공) 전공 50학점 (동일계열 32학점) 이수 시 복수전공 가능 (예비/현직교원), 전공 30학점 이수 시 부전공 가능 (중등 현직교원)
- (문제점) 교육청·학교와 연계가 미흡하여 **학교의 변화** 반영 미흡
- 사회의 다양한 요구·변화에 대한 신속·충실한 반영 미흡

※ (참고)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

구분		최저 이수 기준	
		중등	초등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 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교육	8학점 이상, 3과목 이상	
	성적	75점 /100점 이상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영재교육 영역 포함, 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성적	80점 /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 중등교원 양성체제

- (양성체제)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양성

	사범대학 /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1학년도 정원	9,420명	4,963명	7,283명
양성기관별 특성화 방향*	공통과목 교원양성 (국어, 수학, 영어 등)	사범대 미 양성 분야 (전문계 교과 등)	현직교원 재교육 일부 양성기능 포함
양성정원 특징	학과정원 = 양성정원	학과정원의 10% 이내 운영	총 정원 (과목별 구분 無)

*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 ('05년)에서 제시

- (양성·임용규모) 연간 2만여명 양성, 4천여명 임용, 사립학교 채용 규모 (1천여명), 신규 기간제교사 수요 고려하더라도 과잉 양성

구분	교원양성 정원			교원자격증 부여		
	'10년	'15년	'21년	'10년	'15년	'20년
사범계열	14,348	10,368	9,420	15,140	11,876	11,835
교직과정	15,228	8,709	4,963	10,933	6,039	4,141
교육대학원*	13,651	10,050	7,283	5,838	3,902	3,360
계	43,227	29,127	21,666	31,911	21,817	19,336

* (교육대학원) 양성정원은 중등 + 유치원, 특수, 비교과 포함 (총정원제) / 자격증은 중등자격 현황

- (문제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미흡 및 과잉·중복 양성

- 높은 임용 경쟁률로 인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제한*

*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사범대 학생 증가, 교육실습 운영 학교 연결 어려움 등

□ 초등교원 양성체제

- (양성체제) 교대를 중심으로 목적형 양성 체제 (13개 기관*, 학부 과정)

* 교대 (10개교), 제주대·한국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 (양성·임용규모) 연간 4천여명 양성, 임용규모는 감소 추세이나, 임용경쟁률은 2:1 미만 유지

< 초등교원 양성기관 양성 및 임용규모 변동 추이 >

학년도	'00년	'01~'05	'05년	'06~'12	'12년	'13~'20	'20년
교대 등 양성정원	4,945명	↗(증가)	6,225명	↘(감축)	3,848명	→(유지)	3,847명
채용 인원	8,936명		6,050명		6,507명		3,916명
임용경쟁률	0.7		1.4:1		2:1		1.7:1

- (문제점) 일부 지역 초등교원 수급 (대도시 선호 현상)에 어려움*

* 임용시험 미달 (일부 도지역 교육청), 현직교원 유출 (임용시험 응시) 등

- 교대 소규모* 운영으로 인한 교육과정 다양성·학생 선택권 미흡

* 교육대학 1교당 평균 입학정원 358명

관련 추진 경과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추진

※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 교원전문성 신장, ①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 정책연구 (5건), 현장 의견수렴 (40여회) 등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① 현장 교사 강의 참여 등 **현장 소통**, ② 多교과 역량 등 **미래 변화에 대응**,
③ **교육실습** 내실화, ④ 인권·성인지 감수성, 적·인성 검증, 교육봉사 등 **기본소양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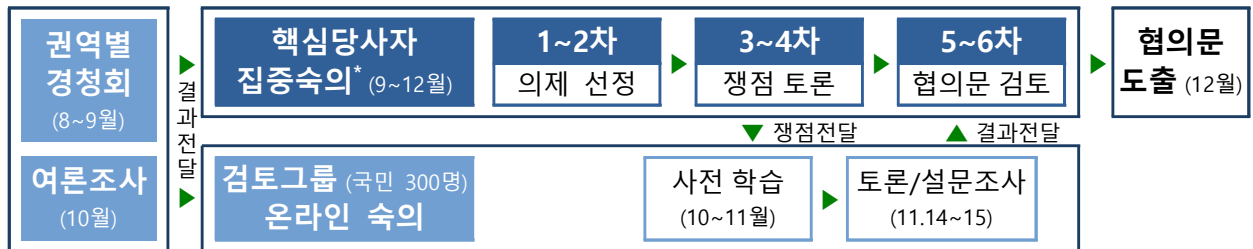
-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사항 안내 ('20.4월)

○ '교원 양성체제 개편 검토안'에 대한 실무협의체 논의 ('20.6~7월)

* (구성)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대생, 교원양성기관, 관련 학회 등 14인

* (논의 과제) ①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 ② **교육실습 확대** 및 **수습교육** 도입,
③ 교원 **자격·임용 개방성 확대**, (④ 교원양성기관 개편은 사회적 협의 과제로 논의)

○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사회적 협의 ('20.8~12월)



*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교원양성기관(6), 예비교원(4), 교원단체(4), 교육청(4) 등 이해관계자와 학부모·청년 등 시민(6), 교육 외 전문가(8) 등 32명 구성

협의문 주요 내용

교육과정 ·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교 교육****을 위한 **유연한 대응** 필요

* 학생 발달 고려한 교육과정, 학생 이해, 학부모 소통, 지역사회 연계, 교사 협업 등

**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교과 간 융합 수업,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양성체제 · **초등교원** 양성체제는 **목적형***으로 **정원 규모를 관리**하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발전 방안 모색(ex. 교대 간 권역별 통합, 교대와 거점국립대 통합 등)

*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임용 규모를 고려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형태

·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양성-임용 불균형**이 크므로 일반대학 **교직이수** 과정, **교육대학원** 신규양성 과정 등을 조정하여 **양성규모 감축** 필요

연계정책 · **임용제도** 개선,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재교육) 등도 연계하여 검토

이행방식 · 교육부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하여 **개편 로드맵**을 '21년 내 제시

- 국가교육회의 주관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 구성* · 운영 (‘21.5~10월)

* 위원장 (성기선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국가교육회의(1), 교육청(3), 교원양성기관(3), 교원단체(2), 예비교원(2), 학부모(2), 전문가(10) 등 24명 구성

※ (1차) ‘21. 5. 28 / (2차) ‘21. 6. 25 / (3차) ‘21. 8. 27 / (4차) ‘21. 10. 15

- (주요 안건)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시안)’ 검토, 대국민 토론회 준비 및 결과 반영, 참여단체 의견 수렴, 주요 쟁점사항 논의 등

-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대국민 토론회 실시 (‘21.7~9월, 총 4차*)

* (1차) 주제별 토론회 :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습학기제 (‘21.7.16)

(2차) 주제별 토론회 : 중등교원 양성체제 ; 융합전공, 양성경로 정비 (‘21.8.6)

(3차) 주제별 토론회 : 초등교원 양성체제 ;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21.8.20)

(4차) 전체 주제 대상 공청회 (‘21.9.15)

※ 교육부 발제, 지정 토론 (7~8인, 교육청·양성기관·교원단체·교사대생·학부모·전문가), 토론자 상호토론, 사전의견 (홈페이지, 이메일 등) 및 유튜브 댓글 질의·답변 등 진행

※ 유튜브 중계 실시간 댓글 1,001건 / 누적 조회수 9,357건 / 서면의견 제출 176건 등

- 유관단체 등 간담회 및 의견 수렴 (수시)

※ 교육감협의회 총회 (‘21.5.13), 초·중등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21.7.8),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21.5.17, ‘21.6.10), 국·공립 사범대학장협의회 (‘21.6.18),

국·공립 교육대학원장협의회 (‘21.8.13), 직업교육학회 (‘21.8.6), 한국정보교육학회 (‘21.8.18),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21.4.16, ‘21.5.11, ‘21.8.5), 6개 교원단체 (‘21.10.27) 등

주요 의견

- ▶ 교원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교육실습 확대·강화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나, 지도 교사·실습학교 부담 확대에 따른 실질적 지원체계, 교육실습 생태계 구축 필요
- ▶ 학교와 학생의 변화에 따라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양성과정보다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과 연계한 제도 설계에 대해 긍정적 평가
- ▶ 중등 양성규모 감축이 시급하며, 기관별 특성화를 통한 기능 재구조화 필요
- ▶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초등 양성 정원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고, 전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라는 초등 전문성에 더하여 기초학력 지원, 교과 융·복합 등의 역량 심화 요구
- ▶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도개혁 필요

추진 방향 및 과제

□ 추진 방향

학교·교실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실습 강화 ▶ 현장 참여 교육과정 운영 ▶ 학습자 이해, 적·인성 검증 강화 ▶ 교육청 연계·협력 확대 	전문성 확장, 지속적 발전하는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多)교과 역량 함양 ▶ 석사수준 재교육 (1급 정교사 연수 연계) ▶ 교대 - 종합대학 연계·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 예비교원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수급계획 고려, 정원 조정·관리 ▶ 중등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범대 : 공통과목 등 중심 - 교직과정 : 전문교과, 신규분야, 비교과 등 - 교육대학원 : 재교육 기능 강화 	예비교원·대학 등 현장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교원 기회비용 고려 ▶ 교원양성기관 목적형 양성 중심 ▶ 대학 개편의 비용 / 효과 고려

□ 추진 과제

구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세부 과제
I. 추진체계 (거버넌스)	거버넌스 기구 마련 교원의 상(像)·기준 합의	I-1.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원양성체제 혁신
II.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 미래 대응	II-1.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II-2.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 II-3. 多교과 역량 함양 (1급 정교사 연수 연계)
III. 중등교원 양성체제	양성경로 정비 ❖	III-1. 교과 특성을 고려한 양성기관 특성화 III-2. 소수선발교과 임용 개선
IV. 초등교원 양성체제	❖ 지역별 발전방안	IV-1. 초등 이수과목 조정 및 핵심전공 신설 IV-2.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

과제별 추진 방안 [안]

I 추진 체계 (거버넌스)

I-1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원양성체제 혁신

- (사회적 참여·소통)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하여 교원양성체제도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숙의의 장(場) 마련
 -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중장기적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협의
-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학술단체, 교원단체 등이 교원의 미래 핵심 역량과 자격 기준 등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양성/연수과정에 반영
- 초·중등 교육과정을 반영한 이수과목 조정, 새로운 분야 교원 양성, 현장성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청 협업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 각계 및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소통하는 행정 구현

II 교원양성 교육과정

II-1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 교원양성 교육과정 지향점 >



- ❖ **미래 소양 함양**
 - ▶ 원격교육, 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활용 역량
 - ▶ 기후·환경, 포용사회, 인권 등 사회 변화에 대한 감수성
- ❖ **현장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 현장 교사 강의 참여 및 교수자 현장 이해 제고
 - ▶ 학습자 이해 제고 및 초·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 ❖ **다층적 적·인성 검증 체계 구축**

- (미래 소양) 원격교육, AI·빅데이터, 기후·환경 위기, 포용사회, 인권 감수성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미래 소양 함양 지원

※ AI·디지털 소양에 특화된 교원의 양성·재교육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 미래교육센터, 관련 분야 대학원, 교육청 등이 공유·연결된 컨소시엄 설치 검토

- 미래 세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소통, 중재·상담 역량 제고
- 교직과목, 필수교양 등 양성기관의 여건에 따라 미래 소양 관련 내용*을 필수 편성하고, 다양한 분야·다른 교과 등에 열린 태도·탐구심을 가지고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 교육부에서 미래 소양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권고

** 미래교육센터, 교육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현직/예비교원이 미래소양 관련 토론, 모의수업 등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양성기관은 소속 대학·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점검*

* 6주기 역량진단 지표에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소양 교육과정 운영' 지표 신설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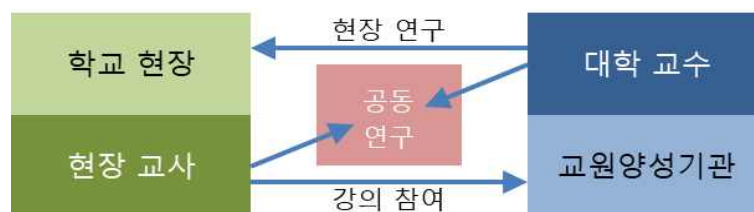
- (현장 이해) 학교 현장 연계 교육과정 운영 확대

- (교수자) 현장교사(수석교사 등) 강의 참여* 확대, 대학교수의 현장 연구**, 현장교사 공동 연구·연구 지도 등 학교 현장 이해 제고

* 교직과목, 교과교육론 등에서 현장교사를 겸임·초빙 교수로 공모·위촉하고, 교육청은 파견·겸직 허가·고용 휴직·연구년제 활용 등 적극 지원(현장교사 파견 근거 등 정비)

※ 중장기적으로 현장교사 출신 교수자 강의 비율 확대

** 주기적으로 학교 현장·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관련 연구비 지원 사업 신설 등 검토



- (학습자) 예비교원과 연수과정에 있는 교원(교육대학원) 간의 공동 수업·학습 동아리 등 연계·합동 교육과정 운영

- (교과목)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별 기본이수과목을 동시 개발하고, 전공과목 교수요목에 초·중등 교육과정 내용 필수 포함

- (적·인성 검증)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다층적 검증 체계 구축
 - (교원양성기관) 문답지 검사, 대학 생활기록 (징계, 실습 등), 결격사유, (필요시)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적·인성 검증 강화
 - ※ 교원양성위원회 기능 강화, 적·인성 검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등 개정

< 교직 적·인성 검증 절차 개선(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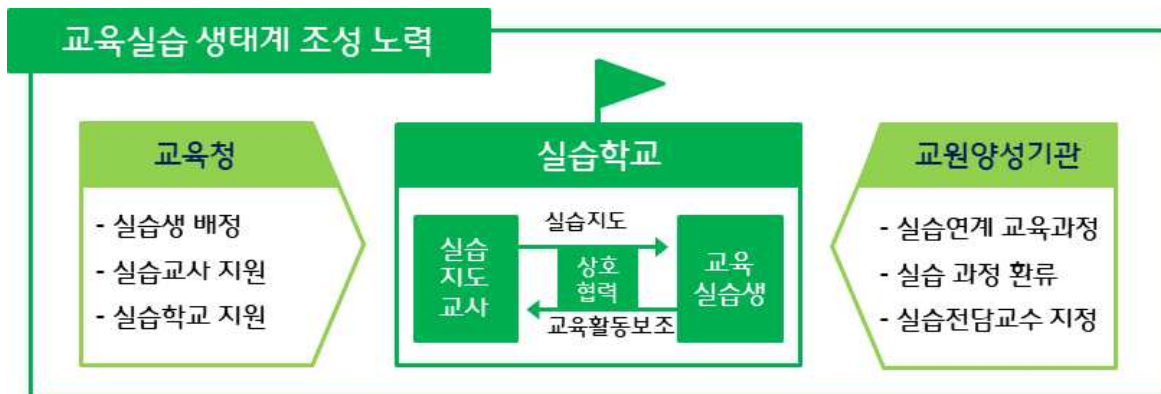


- (교육실습) 실습학기 부적합(F) 받은 경우 교원자격 미발급
- (결격사유) 자격 취득·임용 시 결격사유(교육공무원법 등) 확인
-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부적격자 처리 기준·절차 강화*

* 2차 시험과목별 부적격자 확인 기준을 만들고, 부적격 확인 시 불합격 처리 근거 명시

Ⅱ-2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

- ❖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등 **학기 전 과정 실습 참여 (실습학기제)**
- ❖ 교육실습생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배경) 교원의 현장 역량* 배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 강화 지속 요구

- * ① 교수법, 생활지도, 학습자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 배양
- ② 현장 경험을 통해 교직원·적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 부여
- ③ 인성, 사회성, 자기조절, 성인지 감수성 등 교직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

현장의 목소리 : “교육실습 운영” 관련

- ▶ 교육실습이 교원양성 과정 중 가장 큰 도움이 되며, 교육실습이 **임용과 연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 (사범대학생회간담회, '19.하)
- ▶ 중등의 경우, **양성규모 적정화** 선행 필요 (집중숙의, '20.하)
- ▶ 교육실습생이 학기 중간에 한 달가량 다녀가면 **학교 분위기** 추스르는 것도 어렵고, **부가적인 업무**로만 여겨져 기피하게 됨 (현장 간담회, '18.상)
- ▶ 실습생이 자기 지역으로 **임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적극적 역할 기대하기 어려움 (현장 간담회, '18.상)

○ (교육실습 내실화) 교원양성기관, 시도교육청에 ‘학교 현장실습 운영 안내서’ 배포 등 표준 운영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실습처 확보, 실습지도 강화 등을 위해 교사 참여 유인 마련, 교원 학습공동체·교사연구회 연계 등 교육청과 협력 체계 마련

○ (실습학기제 도입) 교육실습생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학생 상담 등 학기 전(全)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편

※ 1~2주 수업참관 등의 단기 실습은 교원양성기관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현행 학점제(2학점 이상)에서 **실습학기**로 전환 (ex. 3-2학기 또는 4-1학기)
-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실습생이 **실습학교의 구성원으로 협업***하고, **실질적 경험**을 통해 **교직원 점검·실무역량** 배양하는 것을 목표

* 단위학교별 학기 계획 수립 시 실습생에 대해 담임보조, 수업보조, 학습멘토링, 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 업무 수행**을 통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역할 부여

- 실습학교에서는 **실습담당교사*** (수석교사 등)를 정하여 교원양성기관 (실습전담지도교수 지정)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습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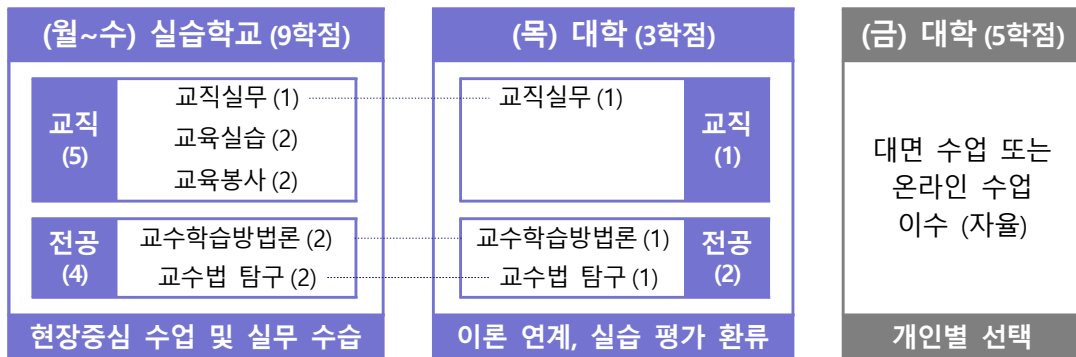
* 실습학교 위탁교육비에서 실습 지도교원 수당 등 지원 가능

※ 실습학기제 도입에 따른 교육주체별 기대 효과

교육실습생	학기 전 과정을 실습/경험하며 현장역량 함양
실습학교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실습생에 맞는 역할 부여 및 업무 분장 안정적으로 업무 보조 (기초학력, 원격수업, 행정업무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운영에 있어 실습학교, 교육청과의 협업 강화 (교육력 제고)
시도교육청	임용후보자에게 지역의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우수인력 유인 기회

- 수업연한 (4년) 내 운영, 이론과 실습 연계 등을 고려하여, 주 3~4일 현장실습, 주 1~2일 교육실습 연계 강의 이수 등의 운영모델 개발

< 시범운영 시 실습학기제 운영 모형 예시 >



- (단계적 확대) 중등교원 양성규모 조정,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22 시범 운영, '28 전면 도입)

※ 실습학교 위탁교육비 (등록금) 및 교통비·의복비, 안전 관련 보험비 등 실비 지원

- (시범 운영) 희망 재학생 (3~4학년) 대상으로 교육청별 실습학교 지정 (ex. 교당 5명 배치, 단계적 운영학교 확대) 시범 운영 ('22. 2학기~)

- (운영 확대)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우수 운영모형을 정립·확산*하여 매년 초·중등 실습학기제 운영학교 확대

* 실습학기제 지원센터(중앙/지역)를 지정하여, 다양한 운영 모형에 대한 연구/지원,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 실습학교-양성대학-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 조성

※ 유치원/특수 교사 적용 관련 별도 검토하여, 추후 시범운영 포함 등 결정

※ 전면도입 시까지 수습교사제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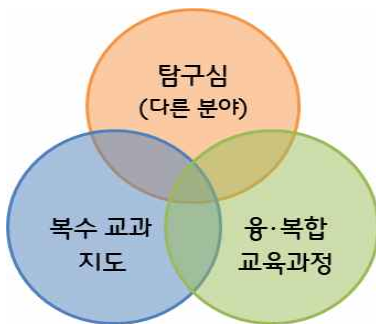
- (전면 도입)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22~'25) 따른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는 '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전면 도입 검토 ('28. 2학기~)

※ 교원 양성 규모 감축,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전면 도입 결정

- (실습 결과) 부적합(F) 판정을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 제한*하고, 부적합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 마련 및 재이수 요건 설정
 - * 부적합 판정 시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실습 재이수** 필요
 - ** (예시) 복무불량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 (성희롱 등) 등 객관적 기준 마련 검토
 - 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실습을 미이수하여도 대체 과목*을 통해 졸업 가능 (자격 미취득)하도록 학칙 개정 권고
 - * (예시) 교육학자, 연구인력 등의 진로 희망자의 경우 대체과목으로 '현장연구' 운영
 - (결과 활용) 실습 과정을 평가하여 임용 시 반영·연계하되, 해당 지역에서 실습하고 임용 응시하는 학생에 대한 우대* 방안 검토
 - *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실습하고 해당 지역으로 임용되는 지역인재 선순환 기대
 - 임용시험에서 교과 지식·이론 뿐 아니라 현장 역량 등 다양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 개선 추진
- ※ (예시) 필기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차 시험 합격자에게 2차 응시 기회 복수 부여 등 검토

Ⅱ-3 多교과 역량 함양 (1급 정교사 연수 등 연계)

< 다교과 역량 구성 요소 >



- ❖ 학부 과정 + 직무 연수 (학점 인정), + 1정 연수 (교육대학원) 연계하여 **'융합전공'** 이수
 - ▶ (중등교원) 현행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전공'**으로 명칭 변경·개선 (교과별 특성 고려)
 - ▶ (초등교원) 현행 학부 '심화과정'을 **'핵심전공'**으로 신설·개편 (현장 수요 대응)

- (배경) 학생 선택권 확대 (고교학점제 등), 교과 융·복합 등 학교의 변화는 교원에게도 단일 교과 전문성을 넘어 多교과 역량*을 요구
 - * 복수 교과 지도,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구성, 타 분야에 대한 탐구심 등

현장의 목소리 : “복수자격 취득” 관련

- ▶ 교과 간 칸막이가 학교가 사회 변화에 뒤처지는 원인 (전문가 간담회, '20.상)
- ▶ 복수 자격은 숨기는 경우 많음, 모든 교원이 갖추도록 해야 (현장 간담회, '18.상)

- (융합전공 도입) 학부 양성과정과 현직교원 연수과정 (직무연수, 1급정교사 연수)을 연계하여 융합전공* (30학점) 이수 지원

* (중등교사) 현행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전공'으로 명칭 변경 및 개선

(초등교사) 현행 심화과정을 확대·보완하여 '핵심전공'으로 신설·개편 ▶과제 IV-1

- (학부 과정) 심화과정(초등), 他전공 과목(중등) 등 학부과정에서 자격 취득 외 이수한 과목을 융합전공 필요 학점 (선수과목)으로 인정
- (직무연수) 교육감이 정하는 일부 직무연수 과정에 대해 융합전공 이수를 위한 필요 학점으로 인정 (「교원자격검정령」 4조 4항 1호 근거)
- (1정 연수) 기간·교육내용을 확대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

※ 다교과전공 이수(중등), 통합운영학교 근무 희망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대학원 전일제 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 점검하여 확대 검토

※ 전일제 운영이 어려울 경우 파트타임 (방학·주말·야간·온라인) 운영 가능

< 융합전공 이수 교육과정 구성 예시 >

학부 선수과목	직무연수 학점인정	1급 정교사 연수*
관심 분야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초등) 심화과정 (중등) 다른 전공, 연계전공 등	교육감 지정 과정을 자율 이수	교육대학원에 위탁하여 융합전공 관련 학점 이수
(과목 예시) 교과 기초, 개론 등	(과목 예시) 교과 내용 등	(과목 예시) 융합 교육과정 구성의 실제, 수업사례 연구 등

* (1정연수 구성 예시) 기본 역량·기존 교과 심화(6학점), **융합전공 관련 학점(9학점), 연결 학제에 대한 이해****(2학점, 필수), 통합교육(특수)(2학점), 교육청 자율 과정(3학점)

** 소속 학교급과 연결되는 학제의 교육과정·학생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필수 편성
(예시, 유치원교사: 초등 저학년 / 초등교사: 유치원, 중학교 / 중등교사: 초등, 중 or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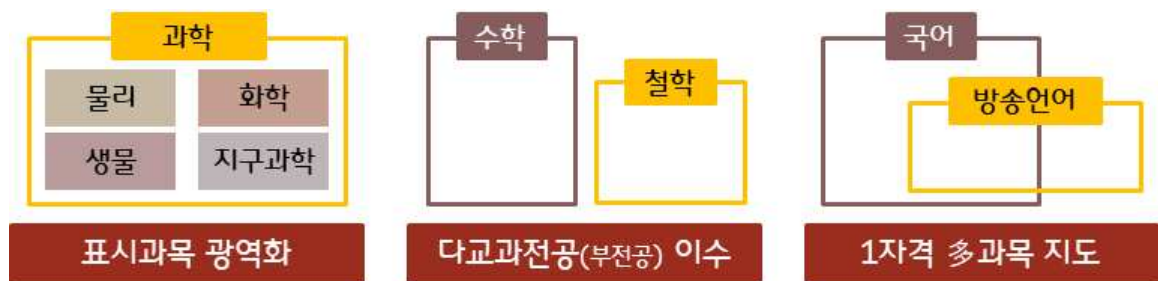
- (학위과정 연계) 희망자는 추가 과정 이수*하여 석사학위 취득 가능

* 고등교육법 제31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석사과정 수업연한은 1년 이상 운영 필요, 1정 연수 (한학기)를 포함하여 추가과정 (1~2학기) 이수 통한 학위 취득 가능

* 교육청별로 추가과정은 10년차 이상 교원 대상 (학습연구년제 연계) 등 자율 운영 가능

- 현장 경험과 교직 이론을 연결·적용하는 프로젝트 (논문 대체)를 과제로 수행하여, 지속적 발전·연구를 위한 메타스킬 등 학습

- (중등교원 모형)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
 - (표시과목 광역화) 계열교과(사회, 과학)의 경우 학부 양성과정과 이후 1정 연수 등을 연계하여 계열/심화 교과의 교육과정 구성
 - ※ 2022 교육과정 개정을 고려하여 계열/심화 교과 취득 방식 추후 검토
 - (예시) 학부 : 통합사회/통합과학 + 주전공 / 대학원 : 전공과목(추가) 또는 타교과
 - (다교과전공 이수) 본인 전공 이외의 교과 자격을 추가로 취득
 - (一자격 多과목 지도) 신설 과목에 대해 동일/유사 교과 교사가 추가 연수 (표시과목 미기재)를 통해 다과목 지도 (ex. 국어 - 방송언어)



Ⅲ 중등교원 양성체제

Ⅲ - 1 교과 특성을 고려한 양성기관 특성화

❖ 양성기관별로 **목적·기능을 특화하여 양성규모 적정화**

사범대/
교육과

- ❖ 정규적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을 안정적으로 양성
 - ▶ 대학 졸업 후 교직 희망자 위해 '학사편입' 제도 정비

교직과정

- ❖ **선택과목, 전문교과, 첨단·신규분야** 등에 대한 수요 대응
 - ▶ 신규분야 학과정원 30% 내 운영 허용, 대학원 **교직과정** 검토

교육대학원

- ❖ 1정 연수, 학위 연계, 생애주기 연수 등 **재교육** 기능 강화



역량진단

- ❖ '6주기 ('22~'25) **역량진단**' 기관 특성화 및 정원 감축 반영

- (배경) 양성/임용 불균형에 따른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한계 및 임용 적체에 따른 경쟁률 상승 등 사회적 비용 발생 해소 요구

현장의 목소리 : “중등교원 양성과정 운영” 관련

- ▶ 중등 교원의 **양성과 임용의 미스매치** 해결이 급선무, 임용률이 낮을 경우 **집중적·전문적** 양성과정 운영에 제한 (집중숙의, '20.하)
- ▶ 사범대학은 **현행 유지**하되, **교직과정은 폐지** (사범대 미설치 교과는 별도 관리),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중심으로 개편 (국공립사범대·교육대학원협의회, '20.하)
- ▶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교원자격 취득의 **재기회**로 여겨지나, 양성과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자격이 남발**된다는 문제점 지적 (교육학회 포럼, '20.9.16)

- (사범대학/교육과)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사회 도덕·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과목 등**) 중심
※ 기존 전문교과·소수교과 사범계학과 존치 (ex. 농업·공업·상업·수산교육과, 환경교육과 등)

-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 실습학기제 등을 안정적 추진하고,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을 중심으로 양성
- (학사편입 개선) 학부 졸업 이후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범대학/교육과에서 양성정원 범위 내 ‘학사편입’ 정비·개선*

* 일반편입 대상자에 학사학위 소지자를 명시하고, 교사 자격 미취득자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의 정원 외 학사편입학 허용 검토

- (교직과정) 전문교과, 제2외국어, 신설·신규분야*, 비교과 중심

*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현재 교원자격이 없거나 정규 교과목에 반영되지 않은 분야

- 사범대와 중복 양성되는 교과 정원을 신규 분야 등으로 전환* 시, 정원 30% 내 운영 허용, 표시과목 신설 (교사자격 없는 분야) 등 검토

* 각 대학별 기존 교직과정 승인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율 조정

* 6주기 역량진단 시 공통과목 등을 우선 감축하고, 전환 시 감축 모수에서 제외 검토

- 첨단·신규분야의 경우 일반/전문 대학원에서도 교직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초·중등교육법」 별표2 개정)
- 교직과정 운영 시, 교직과목, 교과교육 등이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학과, 교육대학원 등과 연계·운영 모범사례 확산

- **(교육대학원)** 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양성과정은 축소** (첨단·신규 분야* 및 특수·비교과 등 존치)하고, **현직교사 재교육** 중심으로 재편
 - * 사회변화에 따라 긴급한 수요가 있는 첨단·신규 분야에 특화된 양성과정 운영
 - 미래 변화 따른 **새로운 소양 함양*** (AI·인구·환경·다문화 등), 1정 자격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취득 등 현직교원 재교육**** 기능 강화
 - * 필요시 **예산 사업 연계**하여 교육부·교육청·교육대학원 협업 : (교육부) 예산 지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청) 연수 대상자 선발 및 대응 투자
 - ** 교원 **생애주기 연수과정** 설계 시, 교육대학원 적극 활용·연계
 - **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의 재교육 과정 운영 관련 협업을 강화**하고, 교육대학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 * 교육청에서 교육대학원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 등 명시**
- **(박사과정 운영)** 교사 전문성 심화, 교원양성 교수 양성 등을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박사과정(EdD) 운영**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검토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등에 조항 신설 검토
 - **현장교사 활용** 위해 교원확보율 요건 (겸임교원 비율) 등을 정비하고, 박사과정 운영 시 **협력 교육청 연계 운영 계획 등 심사 검토**
- **(역량진단)**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22~’25) 기본계획*」에 기능 특성화 및 적정임용률 고려한 **중등 양성정원 축소** 등 반영
 - * (예시) (‘22.上) 6주기 **기본계획** 수립 ▶ (‘22.下) **교대 컨설팅** ▶ (‘23) 일반대학 (사범대·교직과정·교육대학원) 컨설팅 ▶ (‘24) **교대·일반대학 진단** ▶ (‘25) **전문대학 등 진단**
 - 중장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인증제***로 전환하여 대학의 자율 규제 및 자율 정원 통제 기제 마련 (7주기 이후 검토)
 - * 정량지표에 대한 정보공시, 권역별 컨설팅, 교과별 자율 정원 관리 방안 등 검토

Ⅲ - 2 소수선발교과 임용 개선

현장의 목소리 : “소수선발교과·전문교과 등 임용” 관련

- ▶ 전문교과 교사가 이론중심으로 양성되어 현장 부적합 (현장 간담회, '19.하)
- ▶ 제2외국어 등 양성은 이루어지는데 선발·임용은 몇 년째 없는 소수선발교과에 대한 별도의 대책 필요 ('19년 국정감사)

- (배경) 전문교과, 제2외국어 등은 특수한 분야로서 기능·기술이 중요시되고, 일부 학교에서만 수요가 있어 장기 미선발 사례* 발생

* (현행) 다수 교육청에 수요가 있는 순서로 선발 교과를 34개 이내로 선정

- (개선 과제) 전문교과는 임용 과정에서 프로젝트형 실기평가, 관련 기술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실기·기능에 대한 평가 강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교과(군) 재구조화와 연계하여 융·복합 복수자격 취득 활성화* 지원

* 연계전공 운영, 연계과목 중복 인정 등 동일 교과/계열 내 이수학점 완화 등 검토

- 출제기관을 다원화하여 소수교과·전문교과 선발수요 대응 강화

IV 초등교원 양성체제

- ❖ 교원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초등교원 양성정원 지속 조정·관리

*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을 마련하여 중기('23~'27) 교원수급계획 수립 예정('22)

- ❖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 ❖ 인근 종합대학 연계 교육과정 통해 소규모 운영·동질집단 구성 한계 극복

IV - 1 초등교원 이수과목 조정 및 핵심전공 신설

현장의 목소리 :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 관련

- ▶ 교대 교육과정은 선택권이 제한, 마치 **고등학교** 같음 (교대련간담회, '19.하)
- ▶ 초등교사도 **특정 교과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긍정적, 교과전담교사 운영, 교과 분담 등 **협업 지도체제**가 바람직한 방향 (현장 간담회, '18.하)

- **(이수과목 조정)** 기본이수과목 조정, 심화과정 축소 (현행 18학점 ▶ 9학점 축소) 등을 통해 ‘**담임교사**로서 **소교과** 지도, **학급운영**을 통한 **생활지도**’라는 초등교사 기본 전문성을 충실하게 갖추도록 지원
 - (현행)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기본이수과목이 **교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대 규모가 작아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한계
 - ※ **기본이수과목** (13) :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 ⇒ (개선) 기본이수과목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정보·융합** 등 **미래 요구 역량** 등을 반영하여 조정
 - ※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이후, 양성기관, 학술단체, 교육청, 교원단체, 예비교원 등과 협의를 통하여 **초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총론 포함)** 등을 반영한 기본이수과목 조정
- **(핵심전공 신설)** **현직교원 연수*** (직무연수 학점인정, 1급정교사 연수) 과정과 연계하여 ‘**핵심전공**’ 이수 (30학점, 학부 심화과정 9학점 포함)
 - * 수업사례 연구, 교과 융합수업의 실제, 초등과 유치원·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학생 발달특성 이해 등 **현장의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하는 실천적 교육과정** 구성
 -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및 융·복합 역량**을 통해 현장 수요 대응*
 - * 기초학력, 위기학생 심리·상담, 다문화, 교과 융·복합 등 특화된 전문성 제고
 - ※ 교과전담, 초·중통합학교 등에서 활용하되, 초등 핵심전공을 통해 **중등 임용시험 응시 불가, 소속 학교급 전환 불가**
 - 1정 연수, 석·박사과정 등 교대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원 재교육**을 강화하여, **현직교원과 예비교원 (학부생) 간 공동 교육과정**, **현장 연구 참여** 등 예비교원에게 **학교 현장의 간접적 체험 기회** 제공

IV - 2 교육과정 다양성·선택권 확대

현장의 목소리 : “초등교원 교육과정 다양성” 관련

- ▶ 교대생은 대학에서 교류하는 사람도, 졸업 이후 동문도 초등교사로 제한적, 좀 더 다양한 진로의 사람들과 교류·소통 할 필요 (현장 간담회, '18.상)
- ▶ 교대 정원 감축 여력 확보 위해서 교대 간 통합 (연합대학), 기능 확대 (유아/특수), 종합대학과의 연합대학 모델 등도 검토 가능 (지역경청회, '20.8~9월)
- ▶ 교대생들이 초등교원 이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대학으로 통합하여 복수전공 등의 기회 부여 필요 (전문가 간담회, '20.상)

- (배경) 교양 교육, 비교과 교육과정 (학생 동아리 등) 등에서 예비교원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보하고, 다양한 전공자와 교류 확대 필요

※ 동질집단 구성, 교육과정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해 포용적 교사 양성에 제한

- (교육과정 다양화) 인근 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학점 교류), 온라인 교육과정 (k-mooc 등) 및 인적 교류 (연합 동아리 등) 활성화*

* 국립대학 육성사업,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대학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점검

- (대학 통합 지원) 지역별 상황, 대학 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 간 통합,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합 등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례에 준하여 행·재정 지원

※ 사례 예시

△ (종합대학 내 목적형 양성) 통합대학 (제주대 포함)을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내 자원 배분 등에 대한 원칙 마련 검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교대 간 연합대학) 특정 학기/학년에 대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향후 추진 일정(안)

□ 후속조치 추진

※ 교육부 담당자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4년 전보제한) 지정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22년~)

내용	개정 법령
실습학기제 도입	고등교육법(법률), 교육공무원법(법률) 등
기본이수과목 조정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고시) 등
적·인성 검증 강화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교원임용시험규칙(교육부령) 등
(초등) 핵심전공 신설 (중등) 다교과전공 관련 개정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등
1급 정교사 연수 개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표시과목 광역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 등
대학원 교직과정 신설	초·중등교육법(법률) 등
교육대학원 박사과정 운영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등
통합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지정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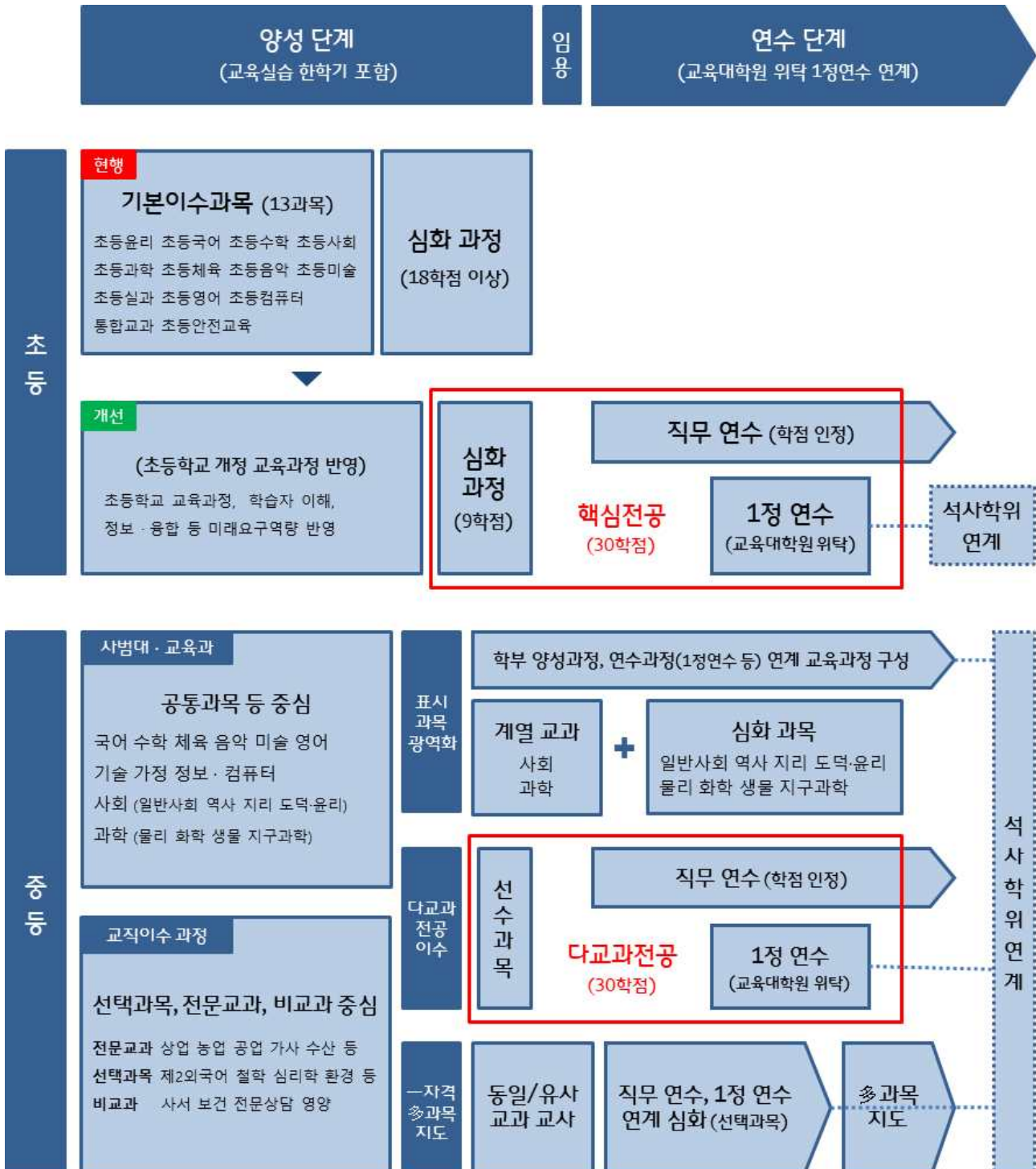
○ '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22. 上)

○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 수립 (~'22. 上)

붙임1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른 운영 모형 예시

□ 운영 모형 : 학부양성 석사연수 체제



붙임2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개념도, 주요 과제 추진 일정(안)

